

### 미완의 도시적 캠퍼스

#### The Incompleted Urban Campus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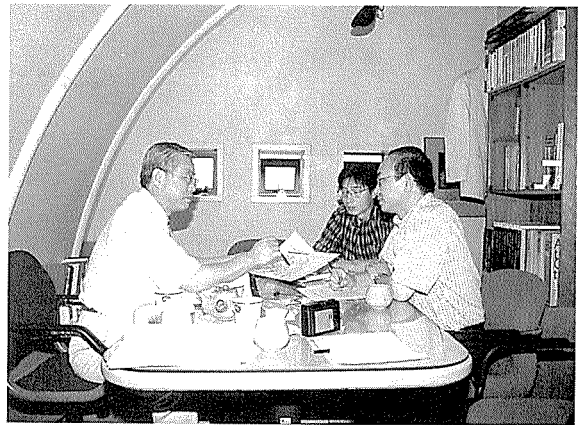
건축사 / 김기웅(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지)

대담자 /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Kim Kee-Woong vs. Lee Bong-Ryoul

일시 / 99. 7. 23. (금)

장소 / 삼정디앤지



대담광경(왼쪽: 김기웅, 가운데: 조희철, 오른쪽: 김봉렬)

김봉렬 \_\_\_\_\_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년전  
쫘 준공된 광주과학기술원은 어떤 부분은 대지에 비해서 조밀  
한 느낌을 주고, 또 어떤 부분은 벌어져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것이 집중적인 배치계획을 의도하신 것인지, 또는 건물의 분산  
을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현상안을 보  
게됐습니다. 원래 현상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원래 현  
상안에는 적절한 규모, 적절한 건물간격이나 배치로 대지를 완  
전히 장악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현재는 땅이 너무 넓  
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현상안과 실제가 차이가  
나게 되었나요?

김기웅 \_\_\_\_\_ 첫째 이유는 프로그램이 달라  
진 것입니다. 맨처음에는 대학원과정과 학부과정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원만을 먼저 짓기로 한 것입니다. 또하나는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항공대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였  
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세 번째로는 재료를 벽돌로 해달라  
는 요구였습니다. 원래는 알루미늄 패널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상 당시는 대지전체가 25만평이었는데 실제로는 10만  
평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입니  
다. 다시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였죠. 그러나 기존의 가로는 유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봉렬 \_\_\_\_\_ 근본적으로 안 자체가 바뀐 셈  
이 되었는데요. 대학캠퍼스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사계  
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물들이 결  
정됩니다. 교육연구동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완전히 주거지  
역으로 계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원만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동쪽땅은 확보도 안됐고 학부가 만들어졌기 때문  
에 결국은 대학원의 교육과 주거, 학부가 들어서면 학부의 교  
육과 주거로 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과정속에서 일어난 변화에  
어떻게 건축적으로 대응하셨는지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기웅 \_\_\_\_\_ 글썄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  
라졌으니까 기존에 이미했던 현상안은 나누어 쓰게 돼 있어요.  
특별한 가로망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잘 들어가지  
않을텐데 격자식으로 도시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용을 차차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죠. 나머지는 완전히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미지나 내용면에서...

김봉렬 \_\_\_\_\_ 현상안의 가로망은 도시적인  
방법으로 작은 도시를 구성하듯이 가로망을 구축했는데 거기  
에 건물들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숫자도 줄고  
프로그램이 바뀐 상태에서 기존 현상안의 가로망에 바뀐 건물  
들이 들어가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

김기웅 \_\_\_\_\_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미 확보된 대지에 일부분을  
분리, 배치했습니다. 물론 각 건물의 위치도 원래 의도했던 것  
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4개의 공학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봉렬 \_\_\_\_\_ 재료도 변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원래는 과학기술원의 분위기에 맞게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  
를 주기 위한 알루미늄 패널이라든지 매스 전체도 상당히 유연  
해서 첨단과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스  
들이 상당히 평범한 형태로 바뀌고 재료도 붉은 벽돌로 바뀌고  
내부의 전문적인 공간도 있었을텐데 그것이 소거가 되는 과정  
에서 결국 나타나는 형태는 과학기술이라는 냄새보다는 묵직  
한 신학교라는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어느 부분은 축소해야 되고 또는 포  
기해야 되는 스케일, 공간, 형태, 재료, 디테일 등등 해서 어떤  
포기나 변화의 과정에서 또는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김기웅 \_\_\_\_\_ 원래 실험동이 주가 되니까 실험동의 개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학부공용시설과 교수실험실이 한 유니트로 되어있는 등 마디에 따라서 학사중심, 연구중심, 강의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윗부분은 호화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 밑부분을 피로티로 처리하려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또하나 벽돌로 주재료를 선택한 것은 대학이라는 이미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김봉렬 \_\_\_\_\_ 대학이라는 것은 왠지 오래된 것 같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지역민들의 바람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군요.

김기웅 \_\_\_\_\_ 에, 그런 인상이 짙었습니다. 또하나는 형태를 여러 가지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보입니다. 기능은 단순한데 형태적으로 크고 작은 수평 수직이 있어서 오히려 복잡하게 보일 것이라 해서 한 사람이 일정시간 내에 설계한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설계한 것 같이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대충 정해진 가운데 입면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야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극복이라기 보다는 건축주의 요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봉렬 \_\_\_\_\_ 한꺼번에 지어지는 건물을 여러 사람이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것 같은 물론 그것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건축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붉은 벽돌이라는 재료가 강해서 형태의 변화라고는 했지만 잘 안보이거든요. 통일성은 강조되지만, 다양성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동하고 신소재공학동의 분위기가 예상외로 고층화되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는 결국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아끼면서 다양성을 만들어 낸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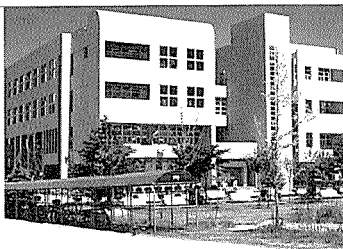
김기웅 \_\_\_\_\_ 구조는 라멘조이지만 재료가 벽돌이기 때문에 벽돌디테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티가 잘 안된 이유가 있고, 일반적인 조적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봉렬 \_\_\_\_\_ 기전공학동을 보면 측면에서 보이는 매스가 돌출된 것은 달마회관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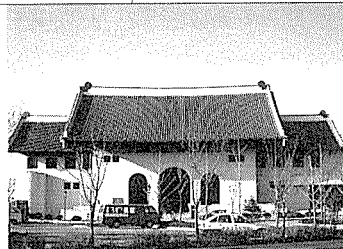
김기웅 \_\_\_\_\_ 벽돌의 경우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콘크리트나 유리식으로 하다보니까 디테일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렬 \_\_\_\_\_ 오히려 한 건물단위로 볼 때는 원래 삼정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비례도 좋은 면도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캠퍼스의 특징이 대지가 완전한 평지라는 점인데, 원래는 산도 있었는데 정지작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보기 드문 융통성이 많은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때 건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면과 건물이 어떻게 접지를 하는가일 것입니다. 원래 현상안에는 대부분의 지면을 공공적인 면으로 활용하는 안이었는데 완공된 안에서는 건물이 완전히 지면에 밀착이 돼 있거든요. 보통 단이 있어서 건물이 지면보다 약간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같은 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확장성 또는 서로간의 관계들이 강조될 때는 타당한 또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과학기술원에서는 그런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외부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인데 의도적으로 땅에다 밀착시켰을 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위계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김기웅 \_\_\_\_\_ 그 부분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벽돌을 사용하라는 전제와 기능이 전부 같은 실험실 위주의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대신 건물주변의 조경에 신



전북대 도서관



매천기념관



독립기념관

경을 써 실험을 하다 밖을 내다볼 때 얻을 수 있는 기능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로비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식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부와 연결이 되는데 조건 자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숲에 붉은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붉은 땅에 붉은 건물이 들어가서 의도했던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동선상으로는 왔다 갔다하는 것이 없더라도 시각상으로는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것은 태생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풍납동합숙소(원환은행)와 같이 기둥으로 해서 피로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문제 등으로 어려웠습니다.

**김봉렬**\_\_\_\_\_실질적인 문제에 가서 제약이 걸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김기웅**\_\_\_\_\_동감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로 기존의 재료라든가 예산상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었지 않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김봉렬**\_\_\_\_\_학생회관의 형태를 볼 때 당연히 내부는 메자닌 플로어도 있고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케이크를 자르듯이 돼있고, 또 1층의 비레나 높이도 식당으로는 적합치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_\_\_\_\_같은 생각입니다. 1, 2층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시원하게 입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봉렬**\_\_\_\_\_현상안에 보면 매스들이 둥글둥글하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품들에서도 곡선이 많이 등장하고 그 곡선이 자유로운 곡선이 아니라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곡선을 많이 쓰는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웅**\_\_\_\_\_지금은 생각이 다르지만 이 작품을 할 때는 항상 모티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원과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은 기본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 지방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같은 이미지를 주 모티브로 삼았어요. 물론 이론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풀여가는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컬러계획도 전체를 푸른색으로 하면 우스우니까 일부를 녹색으로 한다든가 또는 형태에서 대나무같은 라운드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실증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디서 본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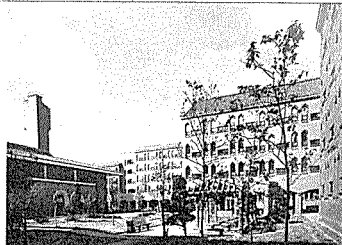
**김봉렬**\_\_\_\_\_원래 현상안이 바뀌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현상안의 간략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초기개념에서 실현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과 반대로 실현은 하였지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_\_\_\_\_초기 마스터플랜은 대지의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중심이 짧아서 매스를 45도로 꺾지는 안이 나왔습니다. 폭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죠. 대부분 인위적이고 대지 성격상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점은 본래 안이 실행이 안된 것이고 그것이 실행됐다면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도로망은 필사적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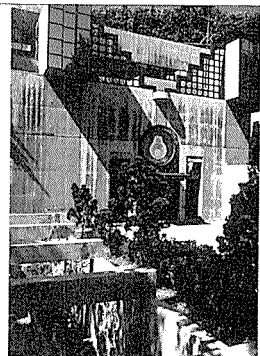
**김봉렬**\_\_\_\_\_이 정도 규모의 마스터플랜을 하면 대부분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적인 차원이 아니고 단지계획을 하듯이 자기자기하게 공간배열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할 정도로 도시적인 스케일을 도입하였는데 오히려 신선하게 보입니다. 오래 전에 올림픽선수촌할 때도 단지차원이 아니고 도시적인 스케일이나 가로망을 단지에 도입한 것이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



MBC 인력개발센터



원환은행 풍납동 합숙소



달마회관

여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여진 경우죠.

김기웅 \_\_\_\_\_ 제일 큰 이유가 건물 자체가 둥글둥글하니까 그것을 불규칙하게 배열했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배치도만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 벽돌집이 아주 답답할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도면만을 보는 것과 체험적으로 공간을 만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렬 \_\_\_\_\_ 앞으로 증축을 통해 원래 모습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가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 스파인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기념비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를 만들듯이 연못을 배열하고 중심축을 설정하고 광장이 있고 도서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적인 상황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익숙한 계획도시 경우겠지만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에는 상치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웅 \_\_\_\_\_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요. 국내의 캠퍼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개념은 거의 같았습니다. 동선은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 좋으니까 결국은 건물의 변화로 표현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 캠퍼스플랜이 굉장히 자유롭다면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김봉렬 \_\_\_\_\_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김기웅 \_\_\_\_\_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는 조경에 변화를 시도했는데 크게는 캠퍼스플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봉렬 \_\_\_\_\_ 앞으로 학부가 생길텐데 단순 계산만으로는 지금보다도 두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개념으로 확장부분에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원하고 학부가 단절되더라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웅 \_\_\_\_\_ 앞으로 들어갈 것이 학부와 주거부분인데 나머지 대지에 적절히 분리해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원래 계획은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두어 과정의 연계성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학부를 두고 그 다음에 주거부분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내에 산과 연못이 있었는데 정지작업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캠퍼스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죠. 지금이라도 조경작업을 통해서 보완해야죠.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연장하면서 지역만 학부와 주거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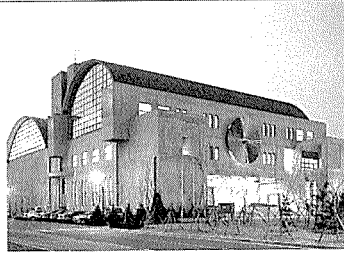
김봉렬 \_\_\_\_\_ 우려되는 것은 두 개의 대학이 있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숙사가 양쪽으로 분리돼 있고 생활공간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서 통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될텐데...

김기웅 \_\_\_\_\_ 그것은 때공간같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나와서 얼굴을 보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나 실험의 연계나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 학부를 지을 때 원래 생각대로 학부와 대학원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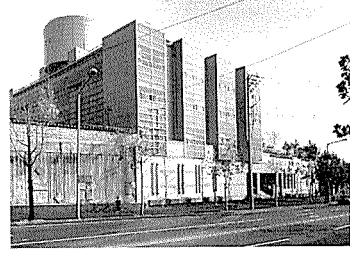
김봉렬 \_\_\_\_\_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과학기술원과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의 학교거든요. 학부에서는 교육하고 대학원에서는 연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부에서부터 연구를 체계화시키려면 교수 밑에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팀이 조직이 되어 연구팀이 되어야 하는데 분리된다면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실험장비 등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상업은행 울산지점



성동구민 체육센터



국립 영상아카데미

김기웅 \_\_\_\_\_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있는 시설과 앞으로 들어설 시설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학교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봉렬 \_\_\_\_\_ 삼정건축 20년 동안 건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기념성에서 변화가 되면서 상당히 자유로운 건축들, 독립기념관이나 전주시청사보다는 달마회관부터 나오는 몇 개의 작품들이 규범성을 많이 깨버린 것이라고 느껴 집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근본에는 튼튼한 기능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특히 형태의 세련성에는 일관성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전반기에 현상설계나 실현된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이테크한 분위기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저한 기술과 형태에 대한 세련도 추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웅 \_\_\_\_\_ 잘 봐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수준까지 못갔을 수도 있죠. 학생뿐만 아니라 기성인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디자인을 머리로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아는데 인식을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공과대학에 있는 것,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건축과에 가는 것 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소설가가 가슴을 탁 치면서 우리는 가슴으로 소설을 씁니다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대부분 머리로 건축을 합니다. 머리는 기억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김봉렬 \_\_\_\_\_ 머리로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또 이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공감은 됩니다. 그렇다면 가슴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표현하기가 힘들

니다. 기본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건축에 입문하신 이후 나름대로 특색있는 건축을 가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기웅 \_\_\_\_\_ 건축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학문도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서는 특히 프로그램 단계, 분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랭크 게리같은 사람도 누가봐도 형태는 지금까지 없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프로그램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계속 버리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계속 스케치를 해서 결국은 포기단계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 건축가는 20~30평 주택을 주로 설계를 하는데 하나를 하기 위해서 3개월동안 스케치만 한다고 합니다. 소위 마음을 비우고 가슴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사회에서 배우는 것도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고, 감각도 지금같은 주지적인 것이 아니고 주정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가다가 차츰 하이테크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 공기, 산업구조, 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변화에 무작정 쫓아가기만 하면 비극이 따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느낌과 감동을 줄려면 건물에서 힘이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무거운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봉렬 \_\_\_\_\_ 힘이리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렬한 전달이면 좋은데,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김기웅 \_\_\_\_\_ 글썽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한 것이구요. 힘이라면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 동양적으로 말하면 기(氣)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이 기를 억눌러 왔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전주시청사



국립영화 제작소



대치동 빌딩

없을 것입니다. 학교교육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떨어집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에너지를 느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철 \_\_\_\_\_ 이 학교는 대학원 중심이다 보니 교수와 학생의 밀착도 강하고 거의 실험실에서 기거하다시피 하는데 주거동같은 것이 가운데에 있고 연구실험동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웅 \_\_\_\_\_ 그것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에서는 주거를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회관은 식당과 도서관을 겸하는데 우리는 학생회관하면 싸클사 무실이 있는데 원래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은 다르다는 건축주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조희철 \_\_\_\_\_ 전체 배치 개념에서 부분부분들의 반복 패턴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웅 \_\_\_\_\_ 그것은 의식적으로 한 것인데, 계획했던 것은 대지전체 25만평 정도에 건평이 7만평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것은 2만평정도 됐습니다.

조희철 \_\_\_\_\_ 애초의 마스터플랜상에는 학생회관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 비껴있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기웅 \_\_\_\_\_ 학교측에서는 학생회관에 대한 개념이 시끄럽고 거추장스러운 장소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안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철 \_\_\_\_\_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면 개별동들은 각각의 건축가에게 발주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건물 하나하나를 달리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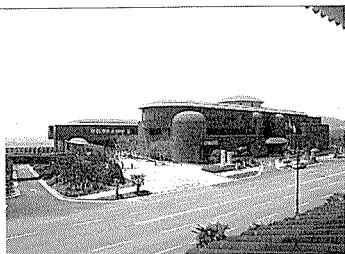
이게 해달라는 다양성을 요구했는데 물론 일관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혼재된 양상의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웅 \_\_\_\_\_ 마스터플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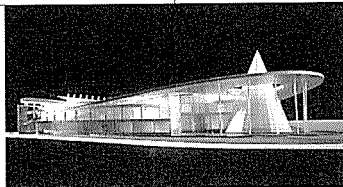
김봉렬 \_\_\_\_\_ 대학 측에서도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코어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관심사나 건축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되시는 면이나 그동안의 건축인생을 회고해 주시지요.

김기웅 \_\_\_\_\_ 아까 잠깐 창작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욕심 즉 교수는 학문에 대한 욕심, 남에게 잘보여야 되겠다는 욕심,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하던 설계를 중간에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윤리의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근본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느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건축인들이 지금 너무나 작은 욕심에서 못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적절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틀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작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작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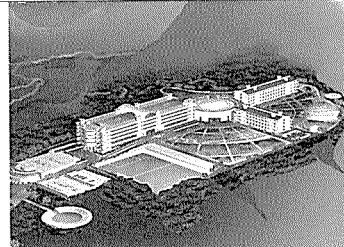
김봉렬 \_\_\_\_\_ 현재 윤리성의 문제가 건축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관광센터



백제역사민속박물관



현대자동차연수원